

해방기 여학생의 정치참여와 우경화-국대안 파동과 웅변대회를 중심으로-

코쭈 리디아

해방 직후 여성들의 정치적 활동은 활발하고 적극적이었다. 여성 정치 지도자가 등장하고, 여성 조직이 연합하여 정치 세력화를 이루었다. 여성의 권익과 정권 창출을 위하여 여성들의 정치 참여는 정당, 여성단체를 통한 제도적 참여로부터 데모 참가, 삐라 살포, 무장 투쟁 등의 활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¹⁾ 파편적으로 기록된 여성 혹은 여학생들의 해방기 정치적 주체에 대한 연구는 특히 냉전, 섹슈얼리티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며 다각적으로 연구되어왔다.²⁾ 그러나 상대적으로 웅변대회는 해방 공간에서 중요한 텍스트로 주목되어오지 않았다. 이 연구는 웅변대회가 공적 공간에서 여학생을 통해 규범화된 정치적 언어를 발화하게 만드는 장치이자, 우익 여학생들이 다른 여학생 대중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활용한 형식이었다는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성의 정치적 활동 중에서 웅변대회는 특히 여성 해방에 대한 의제를 공적 공간에서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기도 했다. 여학생들은 스스로를 신생 국가의 중요한 주체로 자신을 드러내면서 여성 해방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모색했다. 그러나 동시에 웅변대회는 여성들, 특히 여학생들을 정해진 정치적 규범 안에 가두고 정해진 발화 안에서만 변주할 수 있도록 만드는 동원의 수단이기도 했다.

이 연구는 첫째로 여학생들이 어떤 종류의 정치적 행위에 참여하였으며, 또 그들이 스스로를 어떤 정치적 주체로 생각했는지를 잡지와 신문에 기고된 여학생의 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이다. 이와 동시에 여학생 정치 활동에 대한 언론 보도 형태와 여학생의 행동에 대한 담론을 통해서 해방기 대중이 여학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규정하고자 했는지 살펴봄으로써 어떤 편견과 여학생들이 투쟁해야 했는지를 고찰할 것이다. 둘째로 해방기 웅변대회가 여학생들을 동원하기 위한 중요한 형식이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학생들은 선전적 언어를 재생산하는 주조자이자 수용자가 되어서 모범적이고 애국적인 여학생을 형상화하고 정치 규범을 구성하였다. 이 연구는 국대안 파동 국면을 맞이하여 증가하였던 학생들의 동맹 휴학과 학원 민주화를 위한 투쟁 방식을 무화하고 적대하기 위하여 개최된 웅변대회에 초점을 맞춰 살펴볼 것이다. 웅변대회가 해방기 주체를 구성하는 방식은 '대회'라는 형태가 주는 특수성과 관련되어 있다. 연사로 참여하는 학생들은 웅변대회 기획 주제와 심사위원의 선별과 배제 안에 포섭되어 있다. 따라서 국대안 파동 시기 개최되었던 웅변대회의 성격과 우승 웅변대회의 내용, 그 웅변대회에 대한 보도 연설과 심사평을 분석할 것이다.

1) 조경원, 이배용, 「해방이후 여성교육정책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진출 양상-미군정기(1945)~제1공화국 시기(1960)-한국교육사학」, 제 22권 제 2호, 2000, 279쪽.

2) 이영미, 「성애의 시대, 여성 주체와 섹슈얼리티-해방공간의 성담론 사고」, 『국제어문』 33집, 2005., 이해령, 「사상지리 (ideological geography)의 형성으로서의 냉전과 검열」, 『상허학보』 34, 2012, 133-172, 임미진, 「해방기 여성의 생활과 섹슈얼리티의 정치학: 1945-1940년 소설을 중심으로」, 『개신어문연구』 37, 2013., 박필현, 「국가주의적 젠더정치, 모성의 호명과 주체화의 욕망 - 해방기 장덕조 소설을 중심으로」, 『구보학보』(15), 2016., 오태영, 「해방과 청년 이동의 (비)가시화: 이념 공간의 재편과 젠더적 위계질서를 중심으로」, 『동악어문학』 제 75집, 2018., 반재영, 「신생국가 대한민국에서 '젊음'의 향방 : 전후 소설·도의 교육·청년론의 역학 재구성 ①」, 『민족문학사연구』, 81(0), 2023., 전지니, 『극장과 젠더』, 소명출판, 2024.

당시 남한의 학원 상황은 대단히 혼란스러웠다. 태평양 전쟁 종결 이후 8월 16일부터 각 학교는 '임시휴교조치'를 취하였고 새 출발을 구상하면서 '자치위원회'를 조직하여 해방된 조국에서의 새로운 교육실천 방향을 모색하기 시작했다.³⁾ 각 학교의 개학은 1945년 10월 초에야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같은 교육 공백은 학생들로 하여금 '교외활동'에 나가게 하는 동인이 되었다.⁴⁾ 경성대학과 9개 관립 전문학교를 국립서울대학교로 통폐합하고 그 운영을 외부인으로 구성한 이사회에 맡기는 조치를 취하고, 8월 22일 법령 102호에 의해 확정되었다. 학생들과 교수 자치위원회는 이에 반발하며 오랜 기간동안 동맹 휴학을 통해서 국대안 반대 운동을 전개했다. 대학생들은 등록거부를 조직적으로 전개했고 각 지역 중등학교들도 동맹 휴학 운동이 널리 퍼졌다. 그러나 결국 국대안 반대투쟁에 참가한 학생 중 약 5000여명이 제명 당했고, 380여명의 교수와 강사진이 학교를 떠나게 되었다.⁵⁾ 여학생들도 학원가에 끊이지 않는 분규와 시위, 집회, 단체 휴학에 지속적으로 함께 참여했다. 숙명여전 퇴학 사건⁶⁾, 시내 무학교녀 부교장 인사 문제로 일어났던 전교생의 동맹휴학⁷⁾, 1947년 메이데이 행사 참여로 인한 학생 퇴학 사건,⁸⁾ 등의 예시로 볼 수 있듯이, 여학생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폭력적인 행위도 감행하였고, 동맹 휴학은 물론 단식 투쟁을 통해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였다. 더불어 여학생들은 사회적 현실과 자신들의 삶이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다는 것을 인지하며 가두 위 정치적 활동에 대한 적극적 참여와 학업에 집중하는 일 사이에서 자신이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고민하였다. 『새살림』창간호에 실린 “요사이 이상적 여학생”에 대해 중학생 윤남경과 이화여대생 강정임이 실은 글은 이를 잘 나타내는 예시로 살펴볼 수 있다.⁹⁾ 이 무렵 경향신문에서 기획하였던 “미소공위에 호소하는 인민의 소리, 이동좌담회”의 학생편에서는 마침 이 시기에 있었던 학무국의 엄격한 조치와 학생에 대한 탄압에 대한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의 생각이 담겨 있었다. 세 명의 학생들은 모두 학원의 자치가 심각하게 탄압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였고 무상교육등 국가가 학생의 학문의 권리를 보장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보조해야 하는데 동의했다. 특히 급하게 밀어붙인 ‘국대안’ 문제로 학생들이 휴학으로 시위를 하지 않아도 되는 민주주의 국가를 추구했다.¹⁰⁾

여학생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에게 부여되고 있었던 사회적 담론과 이로 인해 여성들의 정치적 활동이 위축되는 상황들을 인지하고 있었다.¹¹⁾ 이 시기에 열렸던 웅변대회는 두가지 종류가 있었다. 첫째는 웅변대회 그 자체가 학생들의 정치 활동이 되어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그 정치적 입장이나 발표에 대해서 긍정하는 것이었다. 대체로 우익단체에서 개최된 이런 웅변대회는 학생들의 정치 운동을 지지하거나 후원하는 매체, 대학, 단체에서 개최되었다. 학생들의

3) 배재백년사 편찬위원회, 『배재백년사(1885-1985)』, 서울:배재학당, 311쪽.

4) 반공학생운동기념사업회 편집부, 『한국학생건국운동사』, 1986, 54쪽.

5) 이재오, 『학생운동사』, 파라북스, 2011, 91-104쪽.

6) 「숙명여전사건」, 『동아일보』, 1946.06.08. (1), 편당된 학원에 항거, 『동아일보』, 1946.06.08.

7) 「무학교여맹휴약화」, 『경향신문』, 1946.11.23.

8) 「퇴학당한 배화여중생 보교도록 지시하겠다」, 『경향신문』, 1947.05.11.

9) 윤남경, 「요사이 이상적 여학생」, 『새살림』, 1947, 1월호, 25-26쪽.

10) 「미소공위에 호소하는 인민의 소리 (10) 학생편」, 『경향신문』, 1947.06.05.

11) 「여학생과 “노라”」, 『경향신문』, 1947.01.19. 「사대 (여) 박대용 가정부인과 독서, P생」, 『경향신문』 1947.02.09.

발화와 우승자를 가림으로써 정치적 진영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였다. 둘째는 학생들이 정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것을 통제하기 차원에서 웅변대회를 주최하는 경우였다. 이 경우 학생들은 정치적 입장에 휩쓸리지 않고 학생의 본분인 공부에 충실하기 위해 학교를 떠나지 않으며, 정치 활동이나 표명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웅변대회를 통해 발화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학생의 정치적 활동, 특히 휴학 동맹을 규제하려는 입장은 주로 우익 인사들과 그 비호를 받는 우익 학생 단체였다. 문교당국은 일부 학생은 현재 제도의 불비를 기회로 정치적 모종의 도를 가지고 무기맹휴로 두고하고 있다”고 하며 이를 배격하고 “진정하고 순수한 학원 건설”을 요구했다.¹²⁾ 이들은 휴학 동맹을 조사하여 맹휴진상보고회등을 주최하면서 다른 학생 운동들을 견제했다.¹³⁾ 특히 서울대학교 단과대 대표들이 모여서 구성한 서울대학교 건설학생회는 반탁 시위 성명서에 맹휴 학생들을 비난하는 조항을 추가하기 시작했고, “이미 학생 자격을 상실한 맹휴도배들의 파괴적인 테러행위를 배격하며 그네들의 목적을 반대한다.”고 선언했다.¹⁴⁾ 8월무렵에는 휴학이나 여하 다른 투쟁을 지속하고 있는 학생들을 과오를 “악질분자”로 규정하고 이들을 거부할 것을 학무국에 요청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¹⁵⁾ 건설학생회는 시위와 뼈라를 통해서 “휴학 동맹”을 좌파적 정치적 운동 수단이라고 매도하며 견제하였다. 이들은 “진정한 학생이란 학업에 집중하는 것”이라는 담론을 구성했다.

서울대 법대주최로 1947년 11월 1일과 2일에 열렸던 제 1회 전국 남녀중등학생웅변대회는 맹휴에 참가하는 학생을 배척하고 오로지 학업에 매진하는 학생만을 애국자로 호명하는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서울대학교는 1등 우승자에게 법대에 무시험으로 합격할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고, 1등은 중앙여중의 황영자가 “천재여 이어나거라”라는 제목으로 당선되었다.¹⁶⁾ 박순천은 이 대회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감상평을 남겼다. 박순천은 학생들에 대해, 학교에 모인 “군중”또한 “장차 피려는 이나라 꽃송이”로 연사들을 이 나라의 “애국자” 이자 “어질지사”로 호명하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웅변의 연사들은 더불어 “절개군은 아들과 딸”로 분류했지만 그는 노골적으로 국대안 반대 운동이나 휴학동맹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이 학생들이 “이제는 스승도 죽이고 학원에 맹휴를 선동하는 악마의 노림”을 피해 갈 수 있는 “경비원”이라고 호명했다. 이처럼 웅변대회의 우승을 통해서 학생의 정치적 언어를 규범화하였으며, 당선된 학생을 신문 보도와 심사위원 평가를 통해 치하하여 주류 담론이자 모범으로 보이게 만들었다. 웅변하며 “공부하는 여학생”은 새로운 시대의 모범이자 애국자로 호명되었지만, 학교 바깥의 정치행동은 학원과 국가를 위협하는 “악마”로 형상화되기 시작했다.

12) 공부하며 요구관철하자, 조선일보, 1947.02.11.

13) 건설학생회주최 맹휴진상보고회, 조선일보, 1948.02.13.

14) 상대반탁시위, 동아일보, 1947.07.08.

15) 악질분자 거부, 건설학생회 성명, 조선일보, 1947.08.13.

16) 나머지 입선한 학생들의 연제를 통해서도 “학생다움”을 강조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2등 '학도들아 이리서라' 서울중앙 흥길(?)군, 3등 '건국과 민주학생의 길' 진명여중 안리다양, 4등 '먼저학생다운 학생이 되자' 명덕여중 박옥순, 5등 '먼저 자기를 혁명하라' 동경중학 윤낙(주),군 (부) 남녀중등학생웅변대회, 1등은 중앙여중의 황양, 『부인신보』, 1947.11.04.